열반, 깨달음과 합일하다



강소연 교수의
불화 속 스토리텔링

⑧ 자유 향한 태자의 여정 '팔상탱' 4

내 무덤에서 울지 마오.
나는 거기에 없소.
나는 거기에 잠들지 않았다오.

나는 불어대는 천 갈래의 바람이요.
나는 하얀 눈 위에 흩뿌려진 금강석 반짝임이요.
나는 무르익은 곡식을 비추는 햇살이요.
나는 조용히 내리는 가을비요.
당신이 아침 고요 속에 눈을 뜰 때,
허공에 포물선을 그리며 가볍게 날아오르는 새요.
밤하늘에 빛나는 부드러운 별빛이요.

내 무덤에서 울지 마오
나는 거기에 없소.
나는 죽지 않았다오.

–어느 아메리칸 인디언의 시

이 시를 읊고 있는 주체는 망자(亡者)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내려다보니, 자신의 무덤에서 오열하고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가 자신의 어머니이건, 아들이건, 남편이건, 부인이건 어쨌든 살아생전 나를 절절히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덤을 떠날 줄 모르는 그에게 "내 무덤에서 울지 마오. 나는 거기 없소"라고 일러줍니다. '나는 자연과 계합하여 바로 당신 곁에 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되어 당신 뺨을 어루만진 걸요' 라며 위로합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변화의 여정 속에 있으니, 나의 상(相)에 머물러 슬퍼말아요' 라고 하네요.

"일체가 無常하니, 애통해 마소서"

이와 유사한 대목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장면인 '쌍림열반상' 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도솔천에 계시던 어머니, 마야부인이 한 걸음에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시신이 보관된 금관 앞에서 애통해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일으켜, 현재 자신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마야부인이 석가모니 죽음에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슬퍼 어찌할 바 모르거늘 세존이 신통력을 일으키니, 금관의 뚜껑이 열리고 부처님이 일어나시어 백 천 광명을 놓으시니, 광명마다 백 천의 화불이 나타나, 부인을 위로하되 "세간의 모든 일이 일체가 무상(無常)하오니, 법이 그러하오니, 너무 애통해 마소서." –〈팔상록〉 中

관 속에 또는 무덤 속에 있는 나는 나의 껍데기이지 더 이상 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법(法)대로 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진리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시니까, 금관의 뚜껑을 열고 '백 천의 광명과 백 천의 화불' 로서 법계(진리의 세계)와 계합해 있는 지금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십니다.



분출하는 사리 구슬, 성화자분(聖火自焚) 장면. 〈쌍림열반상〉의 부분, 흥국사 팔상탱, 1869년, 견본채색.

무덤 속의 나는 내가 아니다
깨달은 마음은 진리와 계합해
오색 사리 하늘서 비처럼 내려
佛身常住 사상 단면을 보여줘

불교에서는 죽음을 '사대(四大)육신이 흩어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대란, 지(地)·수(水)·화(火)·풍(風)으로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말합니다. 이 요소들이 인연이 다해 뿔뿔이 다시 흩어져버리면 육체의 수명이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대육신이 흩어지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 입니다. 천차만별의 중생들의 천차만별의 업(業)대로 천차만별의 마음들이 남습니다. 무수한 마음들이 유존하는 것 같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 마음들은 간단히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깨어있는 마음과 깨어있지 않은 마음' 입니다. 깨어있지 않은 마음을 영가라고 부릅니다. 깨어있지 않은 마음은 윤회를 거듭하게 됩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마음은 진리의 세계인 법계와 계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전에도 활짝 깨어있으셨기에, 깨어있는 마음 그대로 법계의 모습을 드러내어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찬란한 빛이었으며 영롱한 여의주의 향연이었습니다. 무수한 광명의 입자, 불성(佛性)의 입자들이 '제망찰해(帝網刹海: 인드라 또는 제석천의 광명 구슬로 이루어진 그물망이 온 우주 바다에 끝없이 펼쳐진 모습)' 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인드라망 또는 제망의 기본 원리는 화엄경에서 역설되는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 의 연기(緣起) 사상입니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를 비추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 철학자 켄 윌버의 〈무경계(No Boundary)〉에 인용된 R.M.버크(캐나다 정신의학자)의 증언을 보도록 합시다. 깨달음의 차원에서 세상을 보니 바로 '인드라망' 의 세상이었습니다. 신성한 여의주들이 '연기' 되어 '무상' 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객이 없이) 통으로 하나였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원자와 분자가 스스로를 재통합하고 있었다. 우주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으로써 질서에서 질서로 이어져 가며 재결합하였다. 아무런 단절 없이, 단 하나의 빠진 고리도 없이, 모든 것들이 적시 적소에서 질서정연하게 이어져 있음을 보았을 때 그 엄청난 기쁨. 모든 세계,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조화로운 전체로 어우러져 있었다. –켄 윌버〈무경계〉 中

신령한 사리 구슬 내려오네

불교회화 속에는 이러한 법신(法身) 또는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는 조형적 표현과 상징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옛 화승(畵僧: 불화를 그리는 스님, 금어·화사·화원이라고도 함)들은 끊임없이 방편 아닌 방편으로 이를 표현을 하였습니다.

조선 후기 사찰의 탱화로 크게 유행한 팔상도의 마지막 화폭에 해당하는 '쌍림열반상' 에는 석가모니 일대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장면들로 구성됩니다. 두 그루의 사라수 아래에서의 열반에 드시자 제자들이 슬픔과 비애에 휩싸이는 장면(쌍림입멸 雙林入滅), 슬퍼하는 마야부인을 위해 금관에서 나와 진리의 몸을 보여 위로하시는 장면(불모상견 佛母相見), 뒤늦게 달려온 제자 가섭을 위해 관 밖으로 발을 보이시는 장면, 제자들이 금관에 불을 붙이려 하나 불붙지 않는 장면(범화불연 凡火不然), 스스로 금강삼매의 불을 일으키셔서 금관을 태우는 장면(성화자분 聖火自焚), 그러자 폭우처럼 분출하는 8곡4두의 사리 장면과 사리의 분배 장면 등이 한 화폭에 어우러져 석가모니 열반 당시의 정황들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바로 '사리의 분출' 장면입니다. 그림의 화기에는 '8곡 4두의 오색 사리가 마치 비처럼 쏟아진다.(八斛四斗五色舍利如雨散地)'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리가 비 오듯 쏟아지고 스님들이 이것을 받으려고 일제히 성반(聖盤)을 머리위로 치켜든 모습은, 장관이면서도 매우 해학적입니다. 이 같은 표현은, 중국 및 일본 등지의 열반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 특유의 창의적인 특징입니다.

대승불교의 핵심인 불신상주(佛身常住) 사상이, 부처님의 육신이 소멸하여도 본질적인 법신(法身)은 항상 여여(如如)하게 상주(常主)한다는 사실을, 무량한 사리의 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구슬과도 같은 이것을 고려 말기 나옹화상은 영주(靈珠: 신령한 구슬)이라고 지칭합니다. 나옹화상의 '구슬의 유희' 란 뜻의 제목을 가진 '완주가(玩珠歌)' 를 보면, 신비한 여의주(또는 영주靈珠)의 세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구슬(靈珠), 영롱하기 그지없네/ 본체는 하천과 모래사장 두루 있지만 안팎은 비었네/ 사람마다 부대 속에 당당히 간직해/ 오며가며 희롱해도 다함이 없네." 〈끝〉

[연재를 마치며]

지난 1년 간, 불화 속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독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신 '현대불교신문' 에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보다 아름다운 인연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날을, 일상이 수행이 되고 수행이 일상이 되는 그 날을, 기약합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 불교문화재학

사단법인 대한불교선재종

수행의 문턱에서 서로 위로하고 탁마를 함께하실 도반의 인연이 없고, 어느 종단에 이 한 몸을 의지해야 할지 망설이시는 분! 또는 발심출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 출가는 했는데 은사와의 인연이 박복하신 분! 도첩이나 호계첩이 없는 분! 여법한 각종의식 진행방법을 모르는 분! 등 승려로서 갖추어야할 덕목을 저희 종단에서 교육하고 지도하여 정법수행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으니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총무원장 성곡 지운

사단법인 대한불교선재종

● 총본산 : 무등산 미륵사 (광주광역시 동구 동산길7번길 5-11)
● 부 설 : 사찰음식전문점 수자타
● 총무원 : 광주광역시 동구 동산길7번길 5-11
전 화 062)234-9834 | 팩 스 062)223-9233
핸드폰 010-4152-4744, 010-5479-5607

